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실증시험

백신패스 준용, 집중 완료자 우대
사적모임 10명, 결혼식장은 250명
식당 24시까지, 스포츠 대회 허용

정성학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추가로 완화되면서 사실상 일상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실증시험이 진행된다. <관련기사 5면>
전북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8일자로 발령했다. 따라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혁신도시 등 4곳은 3단계, 나머지 지역은 2단계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사적모임을 비롯해 골목상권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규제조치는 추가로 완화됐다.

사적모임의 경우 기존 '4+4'에서 '4+6'으로 확대 개편, 즉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됐다.

골목상권에 대한 영업규제 조치도 마찬가지로 3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경우 2단계와 동일하게 24시까지 실내영업이 허용된다. 종전보다 2시간 더 늘어난 조치로, 24시 이후

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22시로 제한해온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규제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전체 수용인원 대비 4분의 3만 허용해온 숙박시설 또한 운영제한 조치가 풀렸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자를 우대하는 이른바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2·3단계 모두, 특히 식사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홀당 최대 250명까지 허용됐다.

이중 2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최대 151명까지 초청할 수 있는 '99+151', 3단계는 '49+201'이 적용된다.

3단계 지역 종교시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한다면 전체 수용인원 대비 30%까지 모이는 게 가능해졌다. 2단계 종교시설은 종전처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대비 30%까지 허용됐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빗장이 풀렸다.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한다면 대회 개최가 가능하고, 이에 맞춰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도 전면 해제됐다.

■ 전북지역 주요 코로나19 방역수칙 개편안

/ 적용기간 : 10월 18일~31일

구분	2단계	3단계
지역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갈산리 혁신도시
사적 모임	최대 10명(4명+백신 접종 완료자 6명)	
행사 및 집회	100명 이상 금지	50명 이상 금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등	~24시 까지	~22시 까지
식당, 카페	-	~24시 까지(이후 포장 및 배달 가능)
종교시설	수용인원 대비 30%	수용인원 대비 20%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시 30%)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 대비 30% (실외 50%)	수용인원 대비 20% (실외 30%)
결혼식장	홀당 250명 (99명+백신 접종 완료자 151명)	홀당 250명 (49명+백신 접종 완료자 201명)
장례식장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빈소별 50명 미만 + 4㎡당 1명



17일 오전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주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 인근에 올해 첫 얼음이 얼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덕유산에 올 첫 얼음 11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

오늘까지 5도 안팎 추위 이어져

덕유산 향적봉에 17일 올해 첫 얼음이 얼었다. 전주시상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1.6도, 장수 영하 1.4도, 무주 영하 1.3도, 완주 영하 1.1도, 남원 0도, 전주 영상 1도를 기록하는 등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전북지역에 이른 한파가 찾아온 것은 11년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영하권 추위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6에서 18도로 예보됐다. 화요일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5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지청 예보관은 "20일 북쪽의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2차 추위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한 기온 변동에 따른 농작물 냉해 피해 대비와 함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정선 기자

대선 지선 앞두고 복당 바람, 정치권 셈법 분주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등 야당 소속 인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당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하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 진영간 양자 대결 속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당과 관련한 찬반 입장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탈당 전력자들에 대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감점 수위는 복당 논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용광로 선대위 구성과 맞물려 인재영입 및 통합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우려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당 정체성 혼란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대통합이 기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선출 이후 지역 정치권 무소속 등 제 3세력 복당 여부 관심

국민의힘과 접전 예고, 질서있는 통합 목소리 높아

탈당 전력자 지방선거 공천 과정 감점 수위가 최대 변수

후보들을 불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이 복당 기준과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소속 및 야당 소속 인사들에게 대통합은 지나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방선거의 관심은 무소속 단체장들의 복당 여부로 옮겨지고 있다. 전북의 14개 자치단체 중 무소속 단체장 지역은 익산시, 고창군, 임실군, 무주군 등 4곳에

이른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민주당 후보군은 3~7명에 이를 정도로 공천 경쟁이 치열하고 일찍부터 접화된 상태다.

익산시장 출마에 나선 복수의 민주당 후보는 "당헌·당규를 고려하지 않고 무원칙 속에 복당이 이뤄진다면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무소속 단체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영입 등 복당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도내 한 의원은 "무소속 단체장들이 민주당에 복당하면 민주당 내 공천 경쟁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소속 단체장들의 민주당 복당이 대선에 도움이 될지 여부도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탈당 경력자들에 대한 감점 축소 등 타협안이 제시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탈당 경력자들에 대한 25% 감점 범위를 20%안팎으로 줄이고 이에 앞서 민주당 지선후보의 동의를 얻자는 것이 골자다.

/서을=강영희 기자

알림

새전북신문 문학상에 도전하세요!

새전북신문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문학인들과 문학동호인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자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지역	전국의 가정 문인과 문학 애호가	시상규모	대상 1명, 작품상 2명
시상내용	대상·상패와 상금 200만원, 작품상·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공모부문	①2015년 8월 이후 발행한 수필집, 또는 대표작 3점
공모자격	자녀 및 타인 (동일 작품집으로 이중수상 불가)	제출서류	수필집 1권 또는 수필 3편(2천자 원고지 10~12매) 과문학관련 활동사항 1매
제출기간	2021년 11월 5일 (마감당일까지 도착분)	접수처	(우)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인주동) 새전북신문발행 4층(새전북문학상운영위원회)
수상자 발표	추후 발표	후 원	육육결즈

① 공모 작품집 또는 수필집은 반드시 문학관련 활동사항 48종지 1매 병행으로 작성해 제출 (생년월일, 동년연도, 등단지, 작품집명, 문단활동, 수상경력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 등기로 우송할 것)
② 접수된 서류 및 수필집은 반환하지 않음 ③ 수상자 특으로 새전북신문에 게재 예정
새전북신문 문학상 운영위원회

창간21주년

새전북신문 문학상 공모 개최를 응원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장안산 갈대밭

의회 장수군의의회
http://council.jangsu.go.kr